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24-1차(임시)	일자	2021.06.06.	장소	ZOOM화상회의
----	-----------	----	-------------	----	----------

장학제도 개정 관련 논의 임시회의 회의록

<기록 시작>

부총:

...성적우수장학금을 집행할 때, 기초분위부터 8분위까지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전체 성적우수장학금의 33%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66% 대다수의 장학금이 국가장학금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셨다. 밑에 있는 표는 그냥 다른 학교 사례가 이런다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도 그렇고 성적으로 장학금 수혜자를 선발하는 대학들은 제도를 봤을 때는 일단 비율은 저희 학교보다 월등히 적은 게 사실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수석에게는 100%를 거의 보장하고 있다. 그 이외의 하위의 성적구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급이 월등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요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정도가 되고, 본격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 첫 번째는 10% 중에 3%만 기존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살린다고 했을 때 성적우수장학금의 세부적인 집행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성적장학금 감축에 따른 재원을 소득분위나 기타 장학금 신설에 돌릴 때 어떤 방향으로 돌릴 것이냐인데, 일단 여기 3% 내에서 어떻게 바꾸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릴 7% 내에서 어떻게 조정할지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이 크게 세 가지다. 1안은 인원을 유지시키고 금액을 줄이는 방법, 3안은 인원을 줄이고 금액을 유지시키는 방법 학년수석에서도 금액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학과수석은 100%를 기존처럼 보장하는 안이다. 2안은 절충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충안이라고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안과 기타의견을 가지고 설문을 진행하겠다 진행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겠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만약에 설문조사를 예정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설문조사 대상이 성적장학금 수혜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냐 정도를 조사하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혜경험이 없는지 있는지, 수석 경험이 있는지 우수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3%는 자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부서와 본부 전체적으로 3%로 성적장학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2년에 걸쳐 합의된 안이므로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이 강력하다. 그리고 초기에 3% 설정한 것은 소득분위를 5분위까지 전액지급하고 기타 소득분위장학금을 확대하는 것과 복지장학금 등 사각지대장학금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 적절한 범위를 3%로 초기 산정한 것이고 3% 논의가 계속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바꾸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주무부서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7%를 소득분위 및 기타장학에 산입한다고 했을 때 중점적으로 볼 것은 4분위까지 전액 장학 지급되던 것을 5분위까지 늘리는 것이다. 이유는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4분위와 5분위 급간 간에 월 소득이 50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5분위와 6분위 사이에 150만원 차이가 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4분위와 5분위 간 소득수준에 변별이랄지 아무튼 양 급간의 소득수준이 유사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기준도 양 분위에 유사하게 적용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래서 중앙사랑장학금, 소득분위장학금을 늘릴 때도 안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안은 제가 적용례 파일을 드린 것과 함께 보시면 되겠다. 1안은 확보 재원의 60%라고 했는데 60%를 사용하면 5분위에 전체등록

금을 보전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퍼센트를 늘린다면 이후 급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게 주무부서의 설명이다. 그 다음에 좌우 표를 비교해보시면 액수에서 퍼센트로 모두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시 설명 드리면 정액제는 일정 비용을 정해놓고 단위, 소속 단위와 등록금 납부액의 차이와 상관없이 정액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정률제로 돌리면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되 백분위로 환산할 때 소속단위의 등록금 전액에서 몇 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 정률제다. 예를 들어서 정률제로 바뀌어서 6분위의 50%를 지급한다고 할 때 인문사회계열은 300만원 가량의 50%가 되고, 공학계열이나 예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7%의 재원 중에 소득분위장학금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특성화장학금 및 기타장학금 개선안이 포함되어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일단 복지장학금 같은 경우는 여기 써져있다시피 소득분위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이라고 설명되어있다. 복지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다르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고, 신청할 때 다양한 사유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기본적으로는 성적과 소득분위를 일부 산입하게 되고 학생이 제출하게 되는 특별사유서를 보고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별사유에는 파산 실적과 같이 일시적으로 소득여력이 상실된 경우, 혹은 한부모의 자녀 다자녀가정 장애인가정 등등 상시적인 소득적 혹은 가계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학생이 신청을 해서 사유를 제출한 후에 받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골자는 복지장학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복지장학금이 식당이나 기숙사 부대시설을 운영해서 남은 비용 약 5천만원 가량으로 복지장학금을 운영하는 데 이렇게 재원을 유지했을 때는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처럼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근로장학금의 골자는 시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장학금 시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일단 근로장학금을 신청할 때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를 선별기준으로 산입하는 데 전제를 두고 있다. 이미 근로장학금이 소득분위를 반영해서 장학생을 선별하기 때문에 근로장학생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장학생들의 소득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로장학금 확대안을 가져온 것이다.

그 다음에 신규장학제도는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장학제도 신설이라고 되어있는 데 두 가지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일단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장학금, 타 학교를 보면 제가 조사를 했을 땐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서 일정 성취도가 있을 때 보상으로 주는 장학금이 있고 이화여대같은 경우는 등록금음부즈만제도라고 해서 복지장학금과 비슷한 경우이지만 일시적으로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이 생겼을 때 추적해서 장학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런 식으로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든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혹은 7퍼센트 안에서는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무부서에서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7%라고 하면 소득분위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의 개정을 뜻하는 것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규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아무튼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 아래 있는 표는 제가 설명드린 소득급간의 표다. 5구간과 4구간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산정할 때 옆에 있는 소득산정방식으로 산정을 하는 데 정확한 산정방식은 제가 장학제도 추가설명 1 자료에서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 이걸 제가 이 자료설명이 끝나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설문조사 가안을 가지고 왔다. 물론 설문조사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내용을 바꾸거나 할 수 있다. 일단 저희가 고정을 할 수밖에 없는 큰 골자는 3%로 성적장학금을 줄이는 것,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학칙개정을 1학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것 정도가 되겠다. 추진배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계곤란이 어려워질 것이라라는 얘기가 장황하게 쓰여있는 것이고, 1번같은 경우는 성적우수장학금의 세부배분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2번같은 경우는 80%, 70%, 60% 써져있는 데 이후에 복지장학금이나 기타장학금 확대하는 그 비율과 연동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5분위까지 전액지원을

하는 것은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정도 알려주시면 되겠다. 아래 있는 표는 현재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에 대한 설명과 중앙사랑장학금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넘겨주시면 아까 들은 내용이란 똑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이 부분을 팀장님이 설명할 때는 일단 저희가 학칙을 개정할 때는 성적장학금에 대한 내용만 학칙을 개정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학칙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7%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다. 물론 지금 설문조사를 돌릴 때 성적장학금에 대한 내용만 따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하긴 하나 논의를 종료하는 시점이 성적장학금보다 더 길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1학기에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7퍼센트의 활용에 대해서는 방학 정도까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는 복지장학금을 설명하는 것이고 주무부서에서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참고를 한 것은 푸른등대장학의 기준이고 예를 들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겠다. 4번은 신규장학제도인데 여기 써놓은 게 예를 들어 학교에서 기존에 제시한 안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7%에서 아예 새롭게 예를 들면 (가)번을 택한다고 했을 때는 3%를 성적 100%로 하면 나머지 7% 전체나 일부를 성적+소득분위로 아예 새롭게 만들고 그런 식의 논의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희가 3% 외에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고 앞으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그림을 제가 첨부했다. 보시면 일단 원안1안과 2,3안이라고 적혀있는데 성적장학금 3%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소득분위 장학금을 설명드릴 때 1안과 3안이 있었다. 여기서 1안을 적용할 때는 첫 번째 그림같이 된다는 것이고, 2,3안은 5분위 이하까지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장학금 지원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것이다. 신규안은 3%로 고정을 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다양한 경우를 반영한다고 하면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소득분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성적, 소득 나머지를 전부 성적과 소득을 50%씩 산입하는 장학금을 만든다고 하면 3안처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사각지대 장학금의 확대를 위해서 복지장학금을 확대한다고 하면 두 번째 안이 되는 것이라라고 알려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소득산정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기 위해, 전체 내용은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소득산정방식만 일전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길지만 설명 드리겠다. 일단 가구 소득분위 산정을 할 때 소득평가액, 그러니까 월별실질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즉 월별 소득 외 재산을 함께 반영한다. 여기서 공통 적용되는게 공제액인데 저희가 세금을 낸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감해주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부르는 데 실질소득의 경우는 예를 들어 대학생인 신청자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창업을 해서 일정사업소득이 있을 때는 사업소득에서 130만원까지는 공제한다. 130만원까지는 없는 비용으로 치겠다는 거고, 신청인원 외 가구 내 일용소득이라고 되어있는 데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이 직장에서 돈을 버시는 것은 상시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고 신청자의 동생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경력이 단절되신 어머님이나 기타 가구원이 단기직, 예를 들면 건축관리사라던지 사회복지사라던지 단기직에서 소득이 있을 때는 전체소득을 합산해서 그 중에 받은 없는 걸로 치겠다는 것이다. 기본공제액의 경우는 아파트나 자동차같이 재산에 반영되는 공제액인데 원래 국가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으로 공제하게 되어있는데 국가장학금의 경우는 6900만원을 그냥 뺀다. 69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소득평가액부터 보면 월별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득의 종류는 여기 써져있는 정도가 있다. 그러면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고 공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산정되는지 말씀을 드리겠다. 예를 들어 가구에서 신청자 본인이 월별 아르바이트로 40만원을 벌고, 아버님이 400만원을 벌고 어머님이 단기직으로 100만원을 번다고 했을 때 그냥 합산을 하면 가구의 총 월별소득은 540만원이다. 그런데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신청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130만원을 공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면 40만원에서 130만원을 빼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원이 되

고, 아버지의 근로소득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어머니의 단기직 소득은 50%만 산정을 해서 50만원이 반영된다. 그러면 이 가구의 월 소득은 450만원으로 책정된다. 그러면 소득을 환산했고 재산까지 보면 재산에는 일반재산, 땅이나 부동산, 그리고 금융재산, 예금이나 적금 주식을 통해 가지고 있는 돈,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서 6900만원을 제한다고 했다. 제한하는 것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해서 6900만원을 제한다는 것이고 자동차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채도 제하지 않는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즉시판매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걸 환산할 때 전액을 환산하는 게 아니고 일반재산은 전체 재산의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4.17%로 환산해서 여기서 3을 또 나눈다. 재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적다. 일전에 질문을 하실 때 재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주무부서랑 논의할 때도 그 모순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는 제도는 국가에 마련되어있지 않으나 현재 장학재단에서 사용하는 평가기준이 재산 환산액이 적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현찰로 돌려서 금고에 보관을 하거나 이런 식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전체소득이 반영되는 기준이라고 하셨다. 예시를 들어서 보면 제가 아파트를 1억짜리 갖고 있다. 공시지가로, 지금 환산되는 기준이 1억인데 제가 아파트를 살 때 부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가 2000만원짜리가 있고 500만원의 빚을 져서 샀다. 그러면 그냥 합산을 하면 9000만원에 1500만원이므로 1억 5000이 재산이나, 이걸 환산을 하기 시작하면 1억에서 부채 1000만원이 감해지고 기본공제액을 빼면 제가 가진 아파트는 2100만원이다. 자동차는 부채를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2000만원이다. 그러면 제가 4100만원의 재산을 가지는데 아파트를 퍼센트를 적용하면 29만원, 자동차를 퍼센트를 적용하면 29만원... 제가 계산을 여기서 잘못 했습니다만 29만원보다 아파트가 조금 더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가 2000만원이고 여기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가진 재산의 실질재산은 1억 이상이나 환산되는 재산은 58만원이 된다. 재산반영이 굉장히 적다.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가진 소득은 508만원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5분위에서 6분위 급간 사이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1번 자료에 있는 내용은 올려드린지 꽤 됐기 때문에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고, 전체적인 골자는 각 장학금 개정의 방향성과 이유, 3%가 고정된 내용이라는 것과 학칙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현행유지에 대한 내용을 저번에 설명회에서 질문해주신 단위가 있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기존에 본부에서 진행해서 3%는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이것을 돌리기 어렵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장학금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 찬반부터 해당하는 의견수렴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수렴부터 물었을 때는 만약에 과반수 이상이 현행유지에 해당하는 의견을 내면 장학금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장학금 개정이 찬반 논의로 흘러갔을 때는 9분위 이상의 학생과 9분위 이하의 학생이 반반이라는 것이다 저희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목적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원안유지를 넣었을 때는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복잡한 내용이 많다. 이것을 이해를 하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지금대로 가자라는 의견이 과반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적인 방향의 장학제도 운용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현행 유지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다만 모든 설문지에 기타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미 본부에서 설문지가 반영되어있고 저희 차원에서 그걸 더 강화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골자는 3%는 고정되어있고 7%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본부에서 제시한 가안이 있으나 기존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조를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 포함이 가능하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다.

총: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린다. 사실 장학제도에 대한 자료와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설명회도 이미 여러 번 진행했다. 그래서 중운위분들께서도 자료에 대한 해석은 다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총: 부총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올려드린 자료에 대해 질의나 의견부터 받겠다. 이후 설문조사에 대해 의견 받

도록 하겠다.

부총: 공백이 있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다들 속마음으로는 안 바꾸고 냅두었으면 좋겠다일거고 저도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전체 소득분위가 다 등록금 부담이 높고 어떻게 범위를 나눠도 모든 분위에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공감을 한다. 다만 제가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첫 번째는 5분위의 등록금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7%에서 전부 다 성적 소득 반반씩 산입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전체 장학금에서 성적이 일부라도 반영되게끔 한다고 하더라도 3% 장학금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성적만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나머지 7% 안에서는 재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안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각 분위에 따른 장학금 분배를 조금 더 명확히 할 수는 있겠다 그런 방향이 된다면 개정을 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학생들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감하는 시각이 있겠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방향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총: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중운위에서 이야기를 하든 단운위에서 이야기를 하든 소수 몇 명이 이야기를 하면 다 각자의 기준을 대입할 수밖에 없다. 저 같은 경우도 성적장학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나 어쨌든 다른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모든 대표자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고 수혜자가 전체 학생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에 대한 찬반부터 물어보지 못하는 것은 아쉽긴 하나 가장 좋은 의견수렴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라고 생각하고, 최종적인 논의의 방향이 어떻게 되든 의견수렴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원래 공대는 바꾸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바꾸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었으니까 자료는 다 이해했고 추가 의견이나 질의는 현재 없다.

인문.정: 인문대 말씀드리면 공대랑 비슷하다. 일단은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관점에 있어서 성적장학금의 비율을 좀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문대학에서 가장 중요시 했던 건 부총학생회장님이 이미 말씀해주셔서 할 말이 없는데 3%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학우분들에게 먼저 의견을 여쭙 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러한 성적장학금이라는 제도가 학생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직접 몸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우분들이랑 가장 먼저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학생대표자들 과도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미 학교에서 결정이 되었고 결정된 바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거라면 추가의견을 드릴 건 없다. 설문조사나 자료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딱히 드릴 의견은 없다.

총: 사실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사안도 아니고 지난 2020년도 1학기에 등록금환불협의체에서 특별장학금, 본부가 말하는 특별장학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적장학금을 감액한 바 있었다. 그때 기획처장과 총학생회장이 3%로 감축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만 하지 말고 앞으로 위드베이스에서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 다만 그게 2학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지금 되는 것이다. 이게 2학기에 바로 차기학기에 적용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총학생회장단이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서 차기 2학기부터 적용하기에는 시기가 이르고 합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인문.정: 그래서 사실은 총학생회장님이 주신 의견도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학우분들이 이걸 자세히 잘 모른다는 거다. 3%로 합의를 했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작년 중운위, 작년 총학생회장, 작년 학교본부만 아는 것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게 있다. 올해 처음 중운위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시적으로

성적장학금을 3%로 줄이는 것이구나 파악을 했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못했 다.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학우분들 입장에서든 당황스러울 게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설문조사만 봤을 때 학우분들이 제도의 개선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학우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설문조사 결과에 역행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설문조사 전에 학우분들에 대한 설명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강 구되었으면 좋겠다.

부총: 일단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면 사실 시작부터, 작년 2학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았 을 텐데 저희 총학생회도 좀 논의를 시작했을 때는 수동적으로 논의를 받은 측면이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되서 지금 거스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많다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학생의견을 받으면, 저희가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진행하는 거라면 학생의견을 받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가장 원활했겠지만 본부에서 제시해서 논의하기 시작했 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스르기가 저희도 중운위도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안을 찾아서 요구를 하거나 설문에 반영해서 학생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일단 내년이라서 저희 임기랑 다른 일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학생자치에서 제도가 어떻게 정착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학교와 협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인문.정: 저도 학교본부를 비판한 것이지 총학생회장단을 비판한 거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

부총: 설명체계는 한 번 고민해보겠다.

인문.정: 그리고 뭔가 이 논의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셨다. 작년도부터 쪽 이어져왔 다는 걸 학우분들께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학우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받아들이면 학생대표자들 뽑아는 낯는데 학교본부랑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고 알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학우분들이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총학생회장님과 부총학생회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학교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에서 두 분도 보고를 받으신 거다. 이런 거는 학교 측에서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 으면 좋겠다. 학교본부는 분명히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저희 보고 세부적인 안을,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학생대표자들이랑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발표할 거 아닌가. 학교 본부가 계속해서 그러한 태도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알리는, 제도가 언제부터 논의가 되었고 배경,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학우분들께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

예술.정: 저도 인문대회장님 의견처럼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제도가 시행되는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설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그거 없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는 단순히 이런 수치상으로 설문조사를 개인이 했을 때 이게 과연 수치결정으로 나와서, 설문조사로 나오는 지표가 큰 의미가 있나 이게 의 견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서, 배경설명이 된 다음에 그때 또 설문조사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 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지금 보여주신 자료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은 없다.

부총: 저도 명확하게 학생사회에 설명이 되고 설문조사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감하고, 사실 같은 맥락에서 설문조사도 참 고칠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이따 뒤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 하겠다.

인문.정: 궁금한 게 있다. 설문조사가 올라갈 때 학교 측에서는 설문조사 가안대로 딱 올라가는 건지 더 이상 의 의견이 없다면?

총: 맞다. 이건 정말 가안일 뿐이고 중운위 대표자분들께서도 의견 내주시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

부총: 저희가 아무 이견이 없다면 이대로 올라가겠다. 본부에서 만든 가장 최종 가안이다.

총: 우선 부총께서 설명해주신 내용과 자료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다. 설문조사 시행과 관련되어 질문에 대한 세부의견이라든지 좀 종합적으로 질의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가안을 보면 마지막에 기타장학금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를 그대로 가져갔을 때는 본부에서 제시한 세 가지 안, 소득분위랑 기타장학금 확대에 대한 세 가지 안 중 어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7%에 대한 활용례를 중운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서 의견을 함께 구한다고 하면 그게 초기에 설문조사 문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7퍼센트 안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는 아예 내용을 다 포함해서 처음에 다 물어보아야지 이제 선택에 혼동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나머지 내용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전 가안보다는 설명이 확대가 되었으나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정도 생각이 된다. 그래서 설문조사 문항을 얘기를 할 때 7%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데 대한 중운위 차원의 안 제시도 함께 이루어져야지 설문조사 문항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설문조사에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이게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의견 제시가 함께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지금 보이는 페이지에 오천만원인데 (50000만원으로) 오타가 있다.

총: 맞다.

총: 부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도 질의가 가능하오니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고 하면 이런 식의 의견 제시를 해서 학지팀에 설문지에 반영을 해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7%를 가지고 소득장학 확대는 5분위까지 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분위에 대해서는 액수 확대 없이 정액제만 정률제로 해라. 그 다음에 복지장학금을 아주 일부 확대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3~4%를 가지고 성적과 소득분위를 산입하는 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더 명확하게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통공.정: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글이 많은 설문조사가 올라가면 잘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교 측에다 아까 인문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의 배경과 설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강력하게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가능한지 여쭙보고 싶다. 제 생각에는 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권교육처럼 그걸 들어야만 성적수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 그래야 더 원활한 이해 속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요청 드린다.

부총: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일단 명확하고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 아까 인문대랑 동일한 말씀이고 동감한다. 다만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저도 말씀드려본 적이 있으나 당시에다 굉장히 난색을 표하시긴 했고, 영상제작이 설문조사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영상제작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회에서 한다면 시각자료는 할 수 있겠으나 영상은 또 모르겠다. 다시 이야기를 해봐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설령 영상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제시를 해주신 수강여부를 의무화한다든지 인권교육과 같이 그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설문조사인데

그걸 성적확인에 담보를 짓거나 하는 거는 명분상으로도 여론상으로도 좋은 판단은 아닐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든다.

부총: 그리고 사실 학지팀에서 영상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있다. 번외로 말씀드리는데 이야기지만 학생지원팀의 설명회를 두 번 이상 들어보신 분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된다. 차라리 저희라면 저희고, 학생대표자면 학생대표자고 그 차원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낫지 지원팀이 그걸 만들어서 배포해봤자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인 것은 똑같다라고 생각한다.

간호.정: 간호대 그 부분에 의견 있다. 학생회가 설명을 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유의미한 설문조사 결과를 얻을 것도 학교인데,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은 학생회가 아니라 학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혹시 설문조사가 학우분들이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 포털로 접하는지?

부총: 아마 그럴 것으로

간호.정: 그럼 이 설문조사 페이지 자체가 뜨는 것인지?

부총: 확실하진 않은데 으레 본부 측에서 사용하는 설문조사 방식이 그렇다. 저도 설명을 학교에서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는데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 학교에서 어떤 수단을 쓰던 학생들에게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가 시행이 되면, 학생회 차원에서 보충자료 정도는 낼 필요 있다는 생각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각 단위별로 판단하면 될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우려점으로 말씀드린다.

인문.정: 그럼 학교 측에서 이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장학제도에 대한 설명을 이미지라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지금 이 설문조사대로 올라갔을 때 제도를 어떤 학우분께서 완벽하게 학교의 취지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말씀드린 학생들과 협의를 어떻게 해왔고 본부에서 결정해서 전달해준 내용이다 이런 부분을 학생회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이유에 따라서 그런 거는 학생 측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학생회 측에서도 할 법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문조사 원안에 대해서는 학생회 측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간호대와 동일하게 생각한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대표자분들이 공감해주시겠지만 설문조사가 올라갔을 때 학우분들이 이 제도를 100% 이해하신 상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실지 의문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다. 저희도 몇 번이나 학교 측의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학교가 똑같은 말을 하긴 하지만, 몇 번의 설명을 거쳐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학우분들은 이 설문조사만 받아보시는 상황인데, 이걸 학교 측에서 어떤 설명도 없이 저렇게만 올렸을 때 설문의 효과가 날지 의문이 있다.

간호.정: 지금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설문조사 내용 자체에는 그렇게 불충분하다고 생각 안 한다. 저도 두 번 정도의 설명회를 거치고 나서야 이해를 하게 되었고 추진방향대로 어떻게 추구를 해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문조사 형태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 내용 자체에는 질의나 의견은 없다.

예술.정: 설문조사에서 추진배경에서 저는 약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 아직도 성적장학금을 줄이는 이유를 이 추진배경에서 읽어보면 경쟁대학에서는 2016년부터 줄였다, 그 정도밖에 배경설명이나 이유가 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희한테 중운위한테 자료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추진배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이유가 타 대학에서 이라고 있으니까 우리도 줄여야 된다 이 정도 배경설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본부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더 있지 않을까?

총: 첫 번째로 다들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시고 그 자료의 형태가 시각이면 좋겠다는 것이 중운위 분들의 중론인 것 같다. 그래서 시각자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고 예술대학 말씀대로 장학제도의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니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제 말은 개선 배경을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이거를 더 써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배경이 지금 그 사람들이 써줘야 하는 거 아닌지?

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큰 주제를 학생지원팀에 던져주면 학생지원팀은 주제에 맞추어서 추가설명자료를 만들어라라고 요청을 할 것이다.

부총: 학생처에서 뭘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할 것이냐에 대한 키워드 정도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이걸 쓰는 건 학지팀이 될 것이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학교 측에서 기대하는 효과 정도를 서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부총: 저도 추가해보자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최소한의 목적이라는게 4분위 5분위간의 급간 해소 사각지대 장학금 확충 이런 건데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배경설명에 반영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다.

간호.정: 4분위의 5분위의 소득격차를 명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켜서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지?

부총: 실질적인 효과라기보다는 대학경쟁력 확대라든지 이런 수사들은 의미가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정을 하면 뭐가 바뀌는지 배경설명부터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었다.

간호.정: 저는 지금 추진배경에 서술되어있는 내용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오히려 너무 글이 길어져서 읽기 힘든 것이지 본부 측에서 포인트를 잡은 것은 교육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겠다라는 것과 학생들의 니즈가 반영된 장학제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오히려 서술이 길어져서 그런 배경이 숨겨져보이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다른 단위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추진배경이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간호.정: 5구간에 대한 내용이 밑에 있는 것 같아서, 네.

부총: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의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시각자료를 추가로 제작한다고 하면 그 자료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여쭙봤다. 그런데 중간부터 논의가 이상해진 것 같다. 설문조사 배경설명은 차치를 해두고, 새로운 설명 자료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를 논의를 하면 되겠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다.

부총: 지금까지 개정의 궁극적인 이유와 개정을 했을 때 변동되는 사항, 기대효과까지 나왔다.

총: 추가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설문조사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주셨다.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방금 전에 타이밍을 놓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시각자료에 들어갈 내용 제가 정리해본 건, 개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개정안이 나오기까지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와 타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한다.

총: 알겠다. 방금 말씀드린 설문조사 구성과 관련해서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전 일단 실제 어떻게 만들어질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설명이 문항 뒤에 나와 있는데 설명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뭐 80%, 70%, 60%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고 설명란에 최소 60%가 필요함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되어있는데 좀 더 해당내용을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부총: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채팅에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에서 중운위에서 안이 나오면 기타 의견도 설문지에 있긴 합니다만 설문지에 추가로 반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총: 추가의견 없으신지?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저도 해결책이 있는게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1번, 2번이 뒤에 나와있는 (가),(나),(다)가 개인적으로 다 별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손봐서 다른 비율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라고는 아직 생각이 안 들어서

부총: 그거를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말씀을, 대략 어느 정도로 써져있는 안이 포함되어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학지팀에 넘겨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결과값을 말씀드린다.

총: 그리고 사실 (가),(나),(다)가 이번에 설문조사에 갑작스레 튀어나온 비율이 아니고 예전부터 저희한테 학생지원팀이 보내준 자료에 나와 있던 퍼센티지이다. 그때 저희가 중운위 회의에서 여쭙봤을 때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고 해서 학생지원팀은 이 비율로 가안을 짰 것이다. 부총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변동되었으면 하는 비율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설문조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다.

부총: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 재학인원의 몇 퍼센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시뮬레이션을 넣어서 수석, 우수 얼마를 줄 수 있는지가 나오고 반대로 학과수석, 학년우수에 이 정도 줘야 된다고 하면 그걸 시뮬레이션을 집어넣어서 재학인원 몇 퍼센트까지 줄 수 있느냐를 저희가 결과값을 가져와서 드리겠다.

총: 제가 봤을 때 저 (가),(나),(다) 비율이 나오게 된 배경은 학생지원팀도 여러 가지 비율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와 가장 부응하는 비율이라고 판단하고 저희한테 넘겨주신 것 같다. 저희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 시뮬레이션도 안 돌려봤고,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라)에 기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취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총: 구성과 관련해서 부총님 의견 외에는 추가의견 없으실지?

예술.정: 예술대는 추가의견 없다.

사과.정: 사과대도 추가의견 없다.

인문.정: 인문대도 없다.

(이하 동일의견)

총: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혹시 추가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설문조사인지 전반적인 걸 다 이야기하시는지?

총: 우선 설문조사에 한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이외 하고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설문조사에 기타의견이 삽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할 그런 건 없다.

총: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술.정: 아까 시각자료 만들 때 궁극적인 목표설명 이런 걸 추가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방금 좀 그 장학제도 개정 관련 학생지원팀 추가설명자료 1페이지를 좀 읽어보면서 거기서 궁극적인 목표들이 많이 설명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자료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내본다.

부총: 저는 사실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늦게 드리는데 전체적인 변화가 다 성적우수장학금 규모 축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2번에는 그런 식으로 질문에 명시가 되어있다. 뒤에 3번, 4번도 똑같이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전체적인 구조를 다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총: 추가의견 없으실지?

총: 없는 것으로 하고 장학제도 개선과 관련된 안건 논의는 마치도록 하겠다. 혹시 추가의견 있으실지 이 안건 외에?

인문.정: 혹시 내일 조사위 뒤에 중운위가 그럼 있는지?

부총: 정말 죄송한데 저번에 장학제도 말고 월요일에 뭘 논의하자고 했었는지?

인문.정: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회의록 찾으면 되지 않을까.

부총: 회의록 찾아보겠다. 만약에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생기거나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논의할 사항이 있더라 라고 하면 조사위 회의 이후에 간이로 하도록 하겠다.

총: 조사위 회의 연장선으로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그리고 궁금한 게 여름방학 때 리더스포럼 진행 예정인데 학교로부터 들은 바가 있으실지?

총: 제가 생각 중에 있는 것은, 저는 사실 리더스포럼 대면으로 하고 싶다 2박3일. 정말 희망이다. 희망인데 그래서 2,30대 백신이 언제 접종이 될 지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백신의 접종양상이 늦어진다고 하면 여름방학 말이나 5월 초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백신접종이 좀 되겠다 그리고 2학기 때에도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2박3일로 간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중이다. 저도 학교본부랑 자세하게 논의를 한 바가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인문.정: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새터는 안 가기로 했는지?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다른 단과대는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

총: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끝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전에 단운위 의견수렴이 되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 다들 어려우실 거다. 작년에도 똑같은 양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백신접종이 언제 될지 몰라서.

인문.정: 인문대학은 일단은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숙박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운위 차원 논의가 될까 궁금했다. 리포도 2박3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새터보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숙박이라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서 물어본 거였다.

부총: 저희도 뭐 저희 가고 싶다라고 갈 순 없는거고 학생여론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고, 새터같은 경우는 안 갈 것이다로 결정하는데 언제 하느냐 이거일 것 같다. 그래서 단운위에서 참고하셔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란다.

총: 그냥 2,30대 백신접종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2학기 단위요구안도 여름 방학 중으로 안건 상정해서 취합할 예정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방면에서 단운위 의견 수합해주시기 바란다. 추가의견 없으시면 중운위 임시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모두 고생 많으셨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